

성명서

향군은 광복회장 김원웅의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을 강력 규탄한다

○ 8월15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회장 김원웅은 ‘친일청산’을 강조하며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 반역자”,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자리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안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등 대한민국의 건국역사를 부정하고 공산화의 위기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 낸 호국영령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광복절 행사장에서 김룡근 광복회 제주지부장이 위의 내용과 똑같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리 준비해 있던 경축사 대신 김 회장의 기념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즉석 연설을 통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편향적인 역사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른바 친일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태어나 보니 일제식민지였고 거기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인생경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비록 모두가 독립 운동에 나서지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 왔던 게 죄는 아니다”라고 했다.

○ 또 “해방정국을 거쳐서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불법남침을 해 왔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과 국민들이 있다”며 “그분들 중에는 일본군대에서 복역했던 분들도 있다. 하지만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역사 앞에서 겸허하게 공과 과를 보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광복절 행사를 원점에서 검토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광복회장 김원웅이 취임 초부터 해괴한 논리로 대한민국의 탄생과 국군의 정체성을 통째로 뒤흔들며 국론분열을 획책해 왔고, 이번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광복절 행사에서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도발적 망언을 자행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제주지사의 소신 발언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통해 향군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광복회장은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몸 바쳐 왔고, 또한 탁월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더 이상 친일로 역사를 왜곡시키며 매도하지 마라.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 후 반민특위 특별법을 만들어

제1조에 일본정부와 공모하여 한일합병에 협력한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나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 한다“라고 하여 친일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8.15 해방 후의 남한은 좌우이념정치논리에 휩싸여 혼돈의 정국인 반면 북한은 소련을 앞세운 김일성이 1946년 2월 조선임시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공산정부를 세웠다. 반면 탁월한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탄생된 대한민국은 전국 도처에 잠복해 있는 남로당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행정조직의 일상화를 꾀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와 관련 특별담화문(‘49.2.2)을 통해 “해방 후 어지러운 정국에서 민족적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심하게 친일부역 했던 자만 처단하고 나머지는 관대히 하는 것이 민심을 수습하는 도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요 반민족 정신인 죄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 정도의 처단으로 족히 민족정기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38도선이 그대로 있고 시국이 혼란하고 인제가 부족한 이때에 반민족 행위 처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특히 김원웅이 주장하고 있는 반민특위 해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한 사실이 없고 산하 특경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해체한 것을 반민특위로 잘못 왜곡 매도한 것이다.

이와같이 건국 초기 친일을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한편 국민통합을 위한 반민특위를 운영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친일로 몰아 건국공로를 폄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복회장은 이승만대통령이 친일과 결탁했다는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둘째, 광복회는 소위 ‘친일세력이 국군의 뿌리’라는 주장을 역사적 사실로 왜곡하지 마라.

향군은 ‘국군의 뿌리’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한다. 최초 국방경비대로 창설된 국군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범통을 계승한다”는 헌법본문에 따라 광복군의 범통을 이어받은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왜 광복회는 굳이 창군원로 몇 분의 일본군 경력을 문제 삼아 국군의 뿌리 운운하며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가?

또한 당시 정부가 마련한 반민족행위처벌법 4조6항에서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였으나 일본군 출신 창군원로

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창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분들은 불과 창군 2년 만에 6.25를 맞아 김일성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는데 목숨 걸고 싸워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전차 1대 없이 소련제 T-34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을 격퇴시킨 호국 영웅들이다.

그런데 창군원로들을 친일반민족세력이라고 역사의 잣대를 임의대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북한의 6.25남침을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려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향군은 김원웅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김원웅은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과거 정계에 입문할 당시 민주공화당의 공채 1기로 입단한 이래 민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자로 자기 이익에 따라 정당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다. 현재는 광복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신성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애국자들을 친일 프레임에 씌워 토착 왜구로 몰아 국론을 둘로 쪼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호국영령들의 과묘를 주장하는 세력들과 동조하여 숭고한 독립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이며 순국선열이신 김원웅의 부친과 어머니께서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이에 향군은 김원웅의 반 국가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김원웅이 광복회장으로 있는 한 광복회를 보훈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안보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국론분열은 ‘적전분열이다’ 더 이상 국론분열을 획책하지 마라.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국론을 결집하여 전방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할 때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빈발하여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적전분열’이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이적행위이다.

향군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 정책을 뒷받침해 온 국가안보 제2보루인 국내 최대 안보단체이다. 따라서 앞으로 향군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반 국가적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명예를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다.

2020. 8. 16



김진호 회장이 음성군을 찾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보병 37사단 장병들을 격려했다.

향군, 수해복구 팔 걷고 나선 국군장병 격려

국민의 군대로 소임 다하고 있는 장병 노고 위로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회장단은 8월13일 사상유래 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했다.

이번 수해복구 장병 위문은 향군이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제1보루인 현역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 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김진호 향군회장은 보병37사단 책임지역인 충북 음성군 삼성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외에 이영하 공군부회장이 보병31사단을, 양승숙 여성부회장이 보병32사단을, 허재수 해병대부회

장이 보병35사단 전북 남원읍을 방문, 수해지역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각각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8월18일에도 수해 복구에 앞장서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일대에서 수해복구를 지원하는 보병3사단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한편 향군의 전국 시 군 구회도 지역 내 수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나서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김성숙기념사업회 8.17 성명에 대한 향군의 입장

광복회장 김원웅! 니가 댜데 호국영령을 욕되게 하는가?

○ (사)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김성숙기념사업회)는 8월 17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75주년 광복절 경축사 비난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의 경축사를 적극 옹호하면서 김원웅의 경축사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낸 재향군인회를 해체시키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였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향군)는 1952년 2월 1일 전쟁 지원을 위한 준군사조직으로 창설된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또 다시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난 70여년간 오직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 향군은 합법적이고 국민화합을 위한 친일청산에 대해서는 반대할 적이 없으며 지금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원웅은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확실한 역사적 근거도 없는 사실을 왜곡하며 일부 진보론자와 친북주의자들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장군원로들을 친일반민족 세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6.25를 민족 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북한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 따라서 향군은 김원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괴한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건국역사를 왜곡하면서 공산화의 위기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 낸 호국영령을 매도하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또 김원웅의 관찰 단체인 김성숙기념사업회가 향군해체를 주장한데 대해 1천만 향군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몸 바쳐 왔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다. 더 이상 친일로 역사를 왜곡시켜 모독하지 마라.

○ 8.15 해방 후의 남한은 좌우이념 정치논리에 휩싸여 혼돈의 정국인 반면 북한은 소련을 앞세운 김일성이 1946년 2월 조선임시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공산정부를 세웠다. 반면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탄생된 대한민국은 전국 도처에 잠복해 있는 남로당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행정조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부수립 후 반민특위 특별법(1948.9.22)을 만들어 “제1조에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한일합병에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나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다.” 라고 하여 친일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 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반민특위와 관련 특별담화문(49.2.2)을 통해 “해방 후 어지러운 정국에서 민족적 국민화합을 위해 가장 심했던 자만 처단하고 나머지는 관대히 하는 것이 민심을 수습하는 도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요, 반민족적인 죄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 정도의 처단으로 족히 민족정기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38도선이 그대로 있고 시국이 혼란하고 인제가 부족한 이때에 반민족 행위 처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 특히 김원웅이 주장하고 있는 반민특위 해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한 사실이 없고 산하 특경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반발하여 해체한 것을 반민특위로 잘못 왜곡 매도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6.25전쟁 중에도 인접 해양의 주권을 보호하고 일본의 침범을 막기 위해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선포하여 결국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확실히 지켰고, 오늘날 독도의 실질적 지배를 가능케 하였다.

○ 이와 같이 건국 초기 친일을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화합을 위한 반민특위를 운영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친일로 몰아 건국 공로를 폄하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복회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친일과 결탁했다는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둘째: 장군원로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호국영령을 모독하려면 순국선열을 따로 모셔라.

○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분문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광복군의 범용을 이어 받은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군 창설과정에서도 지청천, 이범석, 최용덕, 송호성 등 광복군 출신이 주도하면서 일본군출신 중에서 면접, 신체검사, 과거의 군사경력, 사상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국가가 대한민국 장교로 임관시켰다.

○ 이와같이 장군 원로들은 여러 과정의 장교양성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장교로 임관된 것이다. 김원웅의 역대 육군참모총장 중 초대 이응준 장군 부터 21대 이세호 장군 까지 모두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며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이분들 중에는 자원해 일본군 장교가 된 경우도 있지만 12대 최영희 장군과 16대 민기식 장군은 학도병출신으로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징집되었으며 11대 송요찬 장군은 병으로 입대하여 군조(상사)로 근무하다 국군 장교가 되었다.

○ 이들 일본군 출신의 장군원로들은 당시 정부가 마련한 반민족 행위처벌법 4조 6항의 “군과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 하도록 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장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 그리고 이분들은 불과 장군 2년 만에 6.25를 맞아 김일성 적화통일야욕을 분쇄하는데 목숨 걸고 싸워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으며 전차 1대 없이 소련제 T-34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을 격퇴시킨 호국영웅들이다.

○ 특히,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시 최악의 전투로 알려진 낙동강 방어선상의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며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평양탈환 작전을 성공시킨 국내·외가 공인하는 전쟁영웅이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이기도 하다.

○ 김원웅의 주장처럼 “다부동 전투는 미군이 다 포를 쏘서 죽인 것이다. 우리국군은 그러고 나서 그냥 진군만 한 것이다. 지나치게 셀프 공격을 미화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라”며 선두에서 진두지휘 했던 백장군을 부정하는 것은 백척간두의 낙동강 최후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의 신화를 창출하여 김일성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케 한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스러운 불멸의 승전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 김원웅은 대답하라. 당신의 주장이 맞다면 미군이 백

장군을 존경하고 최고 전쟁영웅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은 생계를 위해 보수정권에 몸 담았던 게 당연한 것이고 나라가 없던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군에 근무한 경력은 죄가 된단 말인가? 김원웅은 장군 원로들이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공산화를 막아 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전쟁영웅들을 7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친일반민족세력으로 몰아 고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서 파묘하자는 것은 21세기 현대판 ‘토사구팽’으로 향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지금의 서울국립현충원은 6.25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국군묘지로 조성되어 6.25 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령을 모셨던 곳이며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약 국립묘지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함께 묻혀 있는 것이 뜻마땅하다면 순국선열을 따로 모셔라.

셋째: 향군을 해체하면 국가 안보가 무너진다. 국가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광복회장 김원웅은 반국가적 국론분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향군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국가안보 제2 보루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 과 미사일은 5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따라서 제2 보루인 향군을 해체하면 국가안보가 무너진다. 국가안보를 약화 시키는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에 해당하며 반국가적 행위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 광복회장과 김성숙기념사업회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부모님 덕에 영예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향군회원들은 6.25전쟁시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왔으며 분단이후에도 3천여회가 넘는 북한의 남침도발에 대응하는 전장터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 그런데 어떻게 향군 해체가 국민들을 위한 길인가? 역사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김원웅의 편향된 똥판지같은 궤변을 듣고도 박수치고 동조해야 정의이고 개혁적인 세력인가? 누가 사실도 아닌 거짓 선동으로 친일청산 하라는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 했는가? 광복회장의 계속적인 망언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다. 우리는 김원웅과 동조 세력들의 반국가적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론분열의 원흉인 김원웅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앞으로 국가안보 제2 보루이며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은 그 어느 단체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친일청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할 것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시켜 호국영령 들을 모독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군은 그 어떤 반국가적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명예를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다.

2020. 8.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 서훈 신임 안보실장과 안보현안 논의

한미동맹 강화, 전작권 전환 활동 등에 대해 의견 교환



김진호 회장이 8월14일 지난 7월에 취임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간담회 및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향군 안보활동과 태릉골프장 개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 및 공공 외교 활동 등 안보현안과

향군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김진호 회장은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의 향군 안보활동 즉 북한 비핵화 정책지원, 국군 장병 사기고양, 한미동맹 강화활동 등 최근 향군의 안보활동을 설명하고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서 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의 70% 이상이 군사안보에 관한 것으로 “안보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며 실패가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김 회장은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예비역들의 여론과 우려를 전달하고 태릉골프장 개발 후 예상되는 육사 이전 요구 문제 제기의 원천봉쇄를 위해 정부 정책으로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서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회장은 향군의 창설 배경과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향군의 정부정책 지원 활동을 제시하면서 예비역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는 안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향군회원들의 복지 후생 정책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안보전망대

신임 주한미군전우회장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전우회(KDVA)는 8월19일(현지시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신임 이사장 및 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KDV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 결정을 통해 브룩스 전 사령관이 10월1일 취임한다고 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KDVA는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묶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큰 영광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대한 나의 애정과 한미동맹에 대한 나의 인정은 잘 알려져 있으며 양국을 계속 연결시키기 위한 KDVA 업무를 매우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KDVA를 설립하고 3년간 회장을 맡아온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장교협회 이사장에 선임됐다.

■특별기고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시대,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모티브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된 초연결의 시대, 융복합의 시대, 네트워크의 시대이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융·복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상생협력이 가능한 시대이다. 인구 51만여 명에 이르는 평택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캠프 험프리스라는 핵심 화두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군과 주민, 정부와 지자체가 융·복합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티브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융·복합 통해 발전

평택은 10년 전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천안함 용사 46+1명의 추모비와 서해수호의 영웅 등 우리 현대사의 호국영웅들을 모신 호국 안보 공원이 자리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단일 미군기지에서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미8군사령부를 비롯하여 주한미군의 상징인 도시이다. 평택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라는 외형을 넘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 도시로 재인식, 재발견 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상징 도시는 융산시대에서 지금의 평택시대로 바뀌었다. 평택은 정부-군-지자체-시민단체-기업-미군이 상호 연결되고 협력하여 새로운 도약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주한미군의 중심도시인 셈이다.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스마트 국방’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비를 최소화하

고 경제성과 고효율의 국방운영, 똑똑하고 영리한 국방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IRBM, ICBM), 화학무기 등의 각종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상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미동맹은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1953.10.1일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고, 그 상징성과 대표성이 바로 주한미군의 주둔이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안전 보장은 자주국방이 최선의 국가안보이다.

그러나 자주국방에는 많은 예산과 각종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든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과 협력안보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한반도 평화유지의 근간이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서 비롯되어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한미 양국 간의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되었다.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나 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차원에서 새로운 발전책을 모색하는 이른바 ‘한미동맹 2.0’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 평택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이전과 주민들의 협력과 복지 지원을 위한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이 2022년까지 연장 적용되고 있다. 이 기회에 평택의 미래와 발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우리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ICT기술을 접목하여 한국과 미국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돌아보고 조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체험형, 융 복합형, 초연결형의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한다.

평택, 국가안보와 도시발전의 상생 모델로 정착해야

우리 국민에게는 미국과 주한미군을 알고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미군들에게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친숙함을 느끼게 하여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장으로 만들어 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방법은 다양하다.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을 이용한 우리의 문화 유적지나 역사를 간접체험 하게 하고 현장 방문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구상은 쉽다. 실제 행동과 현실로 구현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정부 차원은 물론, 현역과 예비역을 막론하고 각종 싱크 탱크 기관, 지자체 등의 협력과 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일종의 ‘캠프 험프리스 거버넌스’와 같은 협력기구도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발전은 물론 국가안보와 도시발전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책화되어 실천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한미동맹 강화와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좋은 생각들이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현역이나 예비역이나 한결같은 것이다.



윤원식
국제정치학 박사
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

북한, 해커 6천여명 해외서 활동 미 육군 보고서

북한의 사이버전쟁 지도부대인 121국 산하에 4개의 해킹조직이 있으며 6천명 이상의 해커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미 육군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육군은 지난 달 말 미군의 대북 대응작전 지침을 다룬 보고서(North Korean Tactics)를 발간하고 북한의 전자정보전(Electronic Intelligence Warfare), 즉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 조직원들은 주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이 주요 목적인 ‘라자루스’와 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안다리엘’, 금융 사이버 범죄를 지휘하고 있는 ‘블루노로프’, 그리고 북한 내에는 ‘전자전 교란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전자전 교란연대 일부는 평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하의 3개 대대는 개성과 강원도 금강 지역 등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발표, 5년간 301조 투입

경 항모 도입 · 한국형 아이언 돔 · 4천 톤급 잠수함 개발 ... 방위력 개선 병력 집약적 구조 → 기술 집약형 구조로 전력 정예화, 병력자원 감소 대처

국방부는 8월10일 '2021~2025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하고 독자적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경 항모 도입, 북한 장사정포 대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총 300.7조 원(연평균 증가율 6.1%)이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은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100.1조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6조 원(66.7%)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3만톤 급 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항공기 70여대가 탑재돼 '바다 위를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은 웬만한 국가 공군력과 맞먹는다. 군은 항공모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를 감안해 '작은 항공모함'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 이착륙기로는 미국 F-35B가 유력하며 경항모 건조시기에 맞춰 10~2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한국형 아이언

돔(Iron Dome) 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 방어체계로, 추적 · 감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2021~2025년 내에 개발에 착수하고 2030년 초반에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존 3,000톤급보다 무장 탑재와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톤 · 4,000톤급 잠수함도 건조할 계획이다. 신형 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군의 구조도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구조로 정예화된다. 병력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은 55만 5천명(2020년 말)에서 50만 명(2022년 말)으로 감축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나,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 · 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이 향상된다.

해군은 항공 · 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

으로 확대 개편하여, 항공 및 정찰 기능이 보강된다.

아울러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총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첨단 무기체계가 지속 도입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 "현재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비전투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방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무기 개발 도입, 전력 운용, 국방정책 운영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국방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총력지원

모든 생활 불편 해소, 맞춤형 '패키지' 지원

유래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가 시급함에 따라 국방부는 현행작전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했다.

특히 이전에는 인력과 공병장비 위주로 지원을 했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생활의 모든 면이 불편하지 않도록 '패키지화(묶음)' 하여 지원에

나섰다. '패키지화' 지원이란 △피해지역의 토사제거 및 피해복구를 위한 굴삭기, 도저 등 중장비는 물론이고 △피해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급수 차량, 기동형 세탁 및 건조장비, 침구 세트 지원, 그리고 △구급차를 포함한 의료지원, △소독과 방역장비 등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8월 초까지 연인원 25,000여 명과 굴삭기, 포크레인 등

장비 1,600여 대를 지원했다.

이어 장마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복구가 진행된 8월 중순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구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 가용한 인력, 장비를 상황에 맞도록 '패키지화' 하여 총력 지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자체 요청 이전에 군 지원소요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최단시간 내 수해 복구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청을 비롯한 53개 지자체에 군 협력관을 운용했다.



국방단신

주한 무관단 대상 국방정책 설명회

국방부는 8월11일 전쟁기념관 이병형 홀에서 44개국, 1개 국제기구의 주한 무관단과 외교단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안보정세 설명, 우리군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소개,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안내,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소개,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현지 무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주한 무관단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폭발 피해 레바논에 구호물자 긴급지원

국방부는 8월4일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로 피해를 입은 레바논 국민들을 위해 현지에 주둔 중인 동명부대를 통해 의약품과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했다. 동명부대는 우선적으로 마스크 등 생필품 6천 세트(현재 부대 보관중)를 레바논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의약품 등 구호물자 4

천여 세트를 현지에서 구매하여 추가로 전달했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유엔 임무단을 통해 요청할 경우 물자 · 장비 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동명부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2007년 7월 레바논에 파견된 이후 현재 23진 280명이 임무수행 중이다.

제72주년 국군의 날 맞아 대국민 챌린지 진행

국방부는 제72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군 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8월14일 오후 (썬)이랜드월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국민 챌린지를 공동으로 추진

한다. 이번 챌린지는 '달리기'를 주제로 9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약 1달간 1,001km(국군의 날 10월 1일 상징)를 목표로 진행되며 국군 장병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집중호우 피해 보훈가족 지원

박삼득 처장, 전상군경 유족 자택 방문 위로... 현장점검 피해규모 파악, 재해위로금 지급·주거개선사업 등 지원

국가보훈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한다.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8월13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홍○애 보훈가족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홍○애 님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으로 지난 7월 30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인해 주택과 마당이 무릎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8월14일 임직원들과 중부지

방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소재 농가를 방문하여 파손된 농가의 차광막 및 지주목 제거 등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보훈가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보훈단신

국립서울현충원, 호국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제29회 호국문예 백일장과 제15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호국문예 백일장은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성인(대학생, 군인 포함)이, 그림그리기는 초·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현충원은 수상한 작품으로 '호국문예집'을 발간하여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상위 수상작을 SNS와 블로그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현충원은 "올해는 광복 75

주년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유공자, 전사자, 무명용사, 학도 의용군 등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라사랑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품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회 누리집(www.2020snmb-contest.com)과 현충원 누리집(www.snmb.mil.kr)을 참고하면 된다.

국립이천호국원, '셀프 참배' 시행

국립이천호국원(원장 이순희)은 8월20일부터 방문객 및 참배객 누구나 품격 있는 참배를 할 수 있는 '셀프 참배'를 시행한다. 그동안 국가행사 및 기관·단체의 경우에만 집례관의 안내에 따라 격식을 갖추어 참배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마련된 '셀프 참배'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음성 안내에 따라 분향, 경례,

목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셀프 참배'는 지난 현충일 부대행사로 진행한 가족단위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현충탑 참배 체험'을 계기로, 그동안 대다수가 현충탑 참배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현충탑 참배를 하고 싶어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㉔

재정자립 위한 수익사업, 회원 복지증진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

향군 수익사업의 변천 과정 (상)

향군은 안보단체로서 설립취지에 따라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1963년 2월 '자립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자립대책위원회가 바로 수익사업의 효시다. 때마침 이때 미8군은 향군에 불용물자 처리용역을 제안해 왔고 본회는 1964년 4월 22일 한천광업주식회사를 창립하여 미8군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사업이 시작됐다.

수익사업의 효시 자립대책위원회 한천광업 창립, 미8군과 계약 체결

사업이 잘 추진됨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적립하여 회사 창립 5년만인 1969년말 1억 8200만원의 자립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1965년 10월 2일에는 육오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66년 1월 신창공업 주식회사, 1967년 4월18일 순흥금속공업주식을 출범시켰다.

또 1966년 4월 15일에는 처음으로 본회

조직에 사업국을 두고 제반 수익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신규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나 신창공업은 운영차질로 설립 10개월 만에 청산했으며, 순흥금속공업도 경영난으로 1975년 1월31일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1970년 들어서면서 산하기업체 수는 대폭 늘어났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배려로 1971년 3월 6일 전라고속운수주식회사가 향군의 산하기업체로 편입되고 3월11일 상호를 중앙고속운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군의 자립과 회원 복지증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또 기존의 경비업체인 범야공신주식회사와 제휴하여 1972년 7월7일 향군 산하업체로 편입시킨 뒤 경비용역사업에 진출함으로써 회원들의 취업알선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1974년에 들어 향군회원들의 복지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향군이 추진하고 있던 총력안보운동의 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사업여

건을 마련해 주었다.

경비업 진출, 회원 취업 알선 기여 총력안보운동 위해 다양한 사업여건 마련

6월 1일 폐휴지사업소, 7월 12일 향우용역(주)을 출범시키고 박대통령의 불우영관장교회원들의 생계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철도 객차의 청소용역을 대행하는 향우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1977년 3월 직영사업체로 제지사업소, 군장사업소, 1977년 1월 전업안전사업소가 설립되어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1977년 2월 국방부가 군 불용품처리 분회에 위탁함에 따라 기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1978년 3월 10일 향우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1964년부터 시작된 수익사업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사업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본회 자립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향군의 산하업체 운영에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981년 12월 22일 이사회에서 경영실적이 저조한 육오산업과, 3개 직영사업체를 통·폐합하여 향우물산주식회사로 출범시켜 운영하였으나, 4년후 다시 사업분야에 따라 향우고무주식회사, 군장사업은 향우군장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전업안전사업은 향우전업안전주식회사로 다시 조정했다.

1981년 경영합리화위한 구조 조정 후 현재 수익사업 골격 갖춰

그 뒤, 1986년 3월 5일 중앙고속에 주운사업부가 신설되면서 9월10일부터 충주호관광선 사업이 시작되고 1987년 2월 25일 통일관광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사업을 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때 향군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수익사업 골격이 갖추어진 셈이다. <홍보실>

◇회원 칼럼

단절된 남북관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올 6월13일 북한은 '남한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그 첫 조치로 사흘 후인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로써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활기를 띠게 된 대화와 교류·협력은 2년여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는 당분간 남북관계의 공식적인 단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며, 단기간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커지게 된 것이다.

북, 남북관계 단절 선언...존재 각인

현재 남북관계 단절 선언은 대남 메시지인 동시에 대미 메시지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를 미국에 각인시키는 것이 현 단계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최소한 11월의 미국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를 상대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의 그 시기가 왜 6월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세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첫째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한번 미·북 협상 타결을 시도하려면 하반기 중 남북관계 단절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제재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2021년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조기에 승부수를 띄워야 했다. 즉 당분간 제재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은 대북제재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보여줘야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제재 완화나 해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만약 북한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도발까지 선택한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중·러 등 주변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8월에는 한국 혹은 한·미 차원의 연습·훈련이 다시 시작되므로 이를 긴장 조성행위로 규정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핵심은 어떠한 방침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끔씩 실행에 옮긴다는 점이다.

향후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정리하는 일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시설·자산의 몰수 조치와 해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대남 압박수단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파기일 것이다. 또한 총참모부의 입장문 발표대로 단거리발사체의 발사, SLBM의 시험발사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공개 등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대미 대북정책 방향을 추구할 때까지 압박하거나 혹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인 비핵화 정책을 바꾸려 할 것이다.

대화·교류 강조, 오히려 북한 자극

따라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관련해 우리의 대응은 첫째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화와 교류·협력 지속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자신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북한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과 교류·협력도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의 도발이 상당부분 우려되는 만큼 북한에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대화와 협력 이상으로 단호한 대응의지가 담겨야 한다.

넷째, 대북정책은 북한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화와 협력의 추구 의지는 분명하지만 만약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나 도발이 있을 경우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강하게 던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8월19일 강원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권 동 용
강원도 재향군인회장

◆우수회 탐방 / 경북 영주시 향군

지자체와 유대 강화, 공익사업 참여 ... 사업성과 높아 봉사활동도 하고 수익도 올리고 상호 윈-윈 ... 자부심 가득



반세기 이상 지역중추 사회단체로 자리잡고 그 역할을 다해 온 경북 영주시 향군은 국내 최고 안보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주축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민병철 회장 이하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범 조직이다.

영주시 향군은 회 재정 자립을 위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와 함께 영주시 및 읍 면 동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 재정 확보는 물론 봉사활동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직위상 강화는 덤이다.

태양광 발전사업, 재정 건전성 확보 지자체 발주 용역사업도 참여, 봉사 병행

지난 2018년 11월 태동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정수익확보는 물론 공적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주시 향군은 에너지 절감과 함께 1일 발전량 114Kw를 확보하여 월 7~80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향군은 이 사업성공을 통해서 회 재정 자립과 공익단체 향군의 위상제고를 위한 항구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영주시 및 읍 면 동과 유대를 강화해서 이들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수주,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위상강화는 물론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19개 읍 면 동회는 각각 지자체에 발주한 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확보, 지역에 환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친다. 용역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은 수익을 모두 회 운영 기금으로 기부하고 이 기금으로 지역을 위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공익단체 향군, 칭송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여성회는 지역 관광경제 및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에 참여, 지역에 봉사하며 보람도 찾고 작은 금액이지만 수익

도 창출해 회 운영 및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에 매월 일정액의 회비기금을 더해 생활이 어려운 향군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위문품도 전달하는 등 회원복지 및 공익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곳의 관내 충훈시설을 관리하며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여성회 및 읍 면 동회의 이같은 활동은 영주시 향군 나아가 향군전체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자체 및 시의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 온 민병철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 보조까지 지원을 받는다니, 그간 영주시 향군 임직원들의 노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01 학생군사교육단과 MOU 유대강화 후계세대 안보 교육에도 심혈

영주시 향군은 안보단체 향군의 위상에 걸맞게 안보계도 및 의식 함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육군 3260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예비군 동원 훈련, 을지훈련 기간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매년 유해발굴 현장을 찾아 DNA채취 등 업무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장병들과 안보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6년 경북전문대학 301 학생군사교육단과 MOU를 체결하고 발대식, 체육대회, 동 하계 훈련 때마다 학생들을 격려하며 유대를 쌓고 있으며 여기에서 회원,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보교육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양하고 있다. 영주시 향군은 영주시민들의 안보의식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모자람이 없다고 자평한다.

민병철 영주시 향군회장은 지역 청소년 지원단 단장도 맡고 있다. 청소년 지원단은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민 회장은 선도활동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향군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미래 향군의 인적자산으로 육성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청소년 선도와 안보계도, 그리고 나아가 젊은 향군 육성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주시 향군은 활기차고 역동적이다. 임직원과 회원이 하나 되어 향군의 정체성과 안보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에서 사랑받는 사회단체로 자리잡고 있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기 있는 영주시 향군에 큰 박수를 보낸다.



전북 향군, 수해복구 성금 650만원 기탁

14개 시 군 회원 자발적 모금활동 전개

전라북도 향군(회장 주대진)이 8월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지역을 위한 성금 6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되며 도내 수해복구 지역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전라북도 향군은 8월10일부터 14일까

지 1주일간 도회 및 14개 시·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주대진 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연이은 수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응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 울산 향군, 시도 회장 간담회...조직 활성화 논의



경남 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은 7월29일 (주)무학 굿데이 뮤지엄 홀에서 전국 시·도 회장 간담회를 갖고 향군의 위상확립 방안과 재정자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했다. 시·도 회장 7명과 도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 시·도 회장단간의 친목을 강화하고 향군조직 활성화를 위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충북 제천 향군, 지역주민 아픔 함께 나눠

십시일반 뜻 모아 수해지원금 200만원 기탁



충북 제천시 향군(회장 김영환)은 8월18일 제천시청을 방문, 재난 안전 취약계층 지원금을 여성회와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기탁했다.

김영환 회장은 “향군 남녀회원들이 힘합해 제천지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십시일반 뜻을 모아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재민

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데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역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여기는 나눔의 정신과 시민들의 정성이 수해피해 이재민들에게 큰 용기를 안겨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지원금은 수해를 입은 제천시 지역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 금산 향군 여성회, 사랑의 나눔 봉사

보훈가족 및 소외 독거노인에 생필품 지원, 위로



충남 금산군 향군 여성회(회장 김행순)는 7월28일 지역거주 보훈가족 및 생계곤란 돌봄 가구 등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여성회원들은 직접 반찬을 만들고 생필품(쌀 10kg, 화장지 1Box와 보리쌀 등)을 지역 거주 보훈가족 및 소외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

는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주변을 돌아보고자 실시됐다.

금산군 여성회는 매년 보훈가족 가사 돕기, 대전 현충원 묘비 정화, 지역축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향군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향군 곡성·구례 수해지역 지원

서울 구로구 향군(회장 박종명)은 8월19일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청과 구례군청을 방문하여 각각 2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과 성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물품과 성금은 임직원들의 지원과 찬조를 마련했다.

서울시 호남향우회 총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종명 회장은 호국안보활동은 물론 지역봉사, 그리고 애향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동부·미 중남부 향군, 미 참전단체에 마스크 전달

김진호 회장, 지난 6월 마스크 5만장과 1만 달러 전해



미 동부 향군(회장 김인철)이 8월16일, 18일 한국전참전 용사기념재단(이사장 존 킬리)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윌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에 본회 김진호 회장이 보내온

KF94 마스크 각각 5,000장을 전달했다. 미 중남부 향군도 미 참전단체, 한인회와 함께 한국전 70주년 추모행사에서 마스크 3,000장을 참전단체에 전달했다.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7월21일 ~ 8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7월21일 시회를 방문한 본회 부회장과 안보 간담회를 갖고 서울향군 소개 및 최근 안보현안 토의 및 향군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영등포구회 : 7월29일 구의회 의장실 방문, 간담회를 갖고 향군지원 조례 등 향군 발전을 위한 구의회 적극지원 요청.



은평구회 : 7월29일 향군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친목도모 및 지역 내 봉사활동 실시.

강남구회 : 8월6일 코로나 위기극복 캠페인 전개.

중랑구회 : 7월31일 중랑구 의회를 방문하여 은승희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회 발전 방안 토의.



노원구회 : 장동선 회장이 8월14일 노원구 의회에 방문하여 최윤남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회 발전방안 등 논의.

강서구회 : 8월13일 강서구 의회를 방문, 이의걸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회 발전방안 등 논의.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여성회는 7월28일 부산보훈



병원을 방문, 입원 중인 국가 유공자들을 위로하고 마스크 5000장을 전달.



부산진구회 : 8월13일 6·25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사은행사 개최.

대구시 향군



동구회 : 8월10일 대구시 의회를 방문하여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와 코로나19 극복 방안, 대구시 향군 운영비 지급을 위한 조례 상정 등 논의.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8월13일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인천광역시특수임무유공자회가 주관하는 해상인명구조 시범훈련 및 서북도서 "무인도" 해양환경 정화활동 행사 참석. 8월19일 인천보훈병원 주관으로 진행된 보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보훈가족들의 코로나 19 극복 방안 논의.

경기도 향군



여주시회 : 8월8일 북내면 중앙교회와 함께 폭우 피해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반찬 배달봉사 실시. 8월11일 향군회관에서 여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향진 시

장에게 향군 명예 회원 위촉장 전달. 8월14일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안성시 일죽면 율동 뽕농가 비닐하우스 수해복구 지원.

군포시회 : 7월28일 육탄10용사 중 한분인 지역 출신 고 이희복 상사(용사) 동상 주변 청결활동 전개.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8월10일(월) 충청북도로부터 도비 1억원을 확보, 5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지하, 회의실, 주차장 아스콘 포장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 완료 보고회 가저.

청주시회 : 8월10일 취임인사 차 향군을 방문한 2161부대 전창호 청주대대장을 맞이하여 상호 발전방향 논의. 8월12일 충주시 산척면 합천마을을 찾아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피해복구 작업 지원.



괴산군회 : 8월12일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서 괴산군 주관 '호국자원봉사' 추진 간담회 참석.

제천시회 : 8월19일 봉양읍 사거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시

대전 충남 향군



보령시회 : 8월4일 관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차 상위 계층 사랑 나눔을 위해 지난 봄부터재배한 옥수수 나눔 행사 실시. 청년단은 8월5일 관내 독수리부대 사열대 보수 공사 참여, 군사기 진작 기여.



아산시회 : 8월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온양 3동 2가구를 방문하여 수해복구작업 펼쳐.

금산군회 : 8월1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제원면과 부리면 지역 대민지원에 나선 국군장병들에게 매일간식 지원.

전라북도 향군



완주군회 : 8월10일 주대진 전라북도 회장과 함께 전라북도 의회를 방문, 송지용 의장과 환담하고 완주 향군회관 건립 협조 요청. 여성회는 8월4일 만경강 하천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 장마로 범람해 쌓인 흙더미 제거 및 쓰레기 청소.

남원시회 : 여성회는 8월8일 송동면, 금지면사무소에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 실시. 8월11일부터 13일 일송동면, 금지면 수해지역을 방문, 빨래봉사 및 수해 복구지원활동을 펼치고피해주민 위로.

순창군회 : 8월10일 순창 북중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캠페인 및 향군 홍보활동 전개. 8월14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목적시설을 찾아 산사태 복구 봉사활동 실시.



무주군회 : 8월6일 김재권 6·25 참전용사를 방문, 냉장고를 기탁하고 위로 격려. 8월13일 한국교육문화 개발원 조준태 팀장을 초청, 여름철 폭염 건강관리 및 대처법 교육. 8월13일 용담댐 방류로 피해가 많은 정규동 회원 인삼밭을 찾아 인삼 밭 건기 및 인삼 캐기 봉사. 8월19일 수재민 돕기 성금 120만원을 무주군에 기탁.

고창군회 : 8월5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간담회 참석, 상호 협력방안 논의. 8월11일 수해피해 주민돕기 성금 모금. 8월12일 보훈회관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성경찬 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여성회는 8월13일 고인돌대교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화활동 실시.

전주시회 : 8월15일 애국정신 고취 및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되는 보훈공원 기공식 참석. 여성회는 8월11일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 실시.

임실군회 : 8월12일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나눔 봉사활동 참여.

익산시회 : 8월 전북지역 집중호우로 피

해를 입은 수해주민돕기 일환으로 천변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8월14일 전북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주민 돕기 위한 모금 실시.

김제시회 : 8월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 전개.

진안군회 : 8월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정화활동 및 수해주민 돕기 모금 활동 실시.

군산시회 :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위한 성금 모금활동 전개.

장수군회 : 8월20일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성금 모금활동 전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8월14일 수해피해를 입은 구례군 향군을 방문, 회원들을 위로하고 위문품과 격려금 350만원 전달.

광주 서구회 : 8월4일 서구청과 서구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염주사거리 등 지역 내 주요 교차로에서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범시민 캠페인. 여성회는 8월11일 서창동 일대 비닐하우스 농가 수해복구 대민지원.

광주 북구회 : 8월13일부터 3일간 북구 관내 영산강 일대에서 수해복구 쓰레기 수거 활동 실시.



나주시회 : 8월14일 수해피해를 입은 다시면 죽산리 침수피해 마을 복구 작업 봉사활동 전개.

목포시회 : 8월13일 목포 1대대인 김호규 부대와 협양식을 가진 뒤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 격려.

광양시회 : 8월15일 홍수 피해를 입은 다압면 일대 도로청소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무안군회 : 여성회는 8월18일 곡성군 금예마을 수해 피해 농가 복구지원활동 전개.

화순군회 : 8월10일 화순읍 삼천교와 인도교 근접 침수 주택 청소 및 복구활동 실시.

영광군회 : 8월18일 범성면 수해침수가 옥 재난복구 및 침구류 세탁 등 피해복구활동 실시.

경상북도 향군

영주시회 : 여성회는 7월22일 비가 오는 가운데 문수면 문평로 일원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풀베기, 잡초제거 등 코스모스길 조성 위한 봉사활동.



청도군회 : 7월31일 청도 5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예방 지역사회 방역작업과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에 힘써준 국군장병들을 격려.



안동시회 : 7월22일 호국영웅 이일영 공군중위 기념 사업회 발대식에 참여, 조국을 위한 고인의 숭고한 뜻 기려. 8월11일 권영세 안동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의 날 군가 부르기' 행사 사업비 추가 지원 약속 받아.

문경시회 : 8월20일 유곡동 소재의 박동진 중사 기념비에서 거행된 70주기 추도식 참석, 고인의 위훈 기려.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회장단은 7월25일 하동군 화개면 탐리 학도병 전적지에서 하동군 향군 주관으로 열린 제70주기 하동 화개전투 전몰 학도병 추모제 참석. 여성회는 7월27일 (주)무학 굿데이뮤지엄 홀에서 제9대 박선희 회장 취임식 가져.



창원 마산 합포 회원구회 : 7월28일 구청을 방문, 신임 강병근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보훈단체장 간담회 가져.

창원 의창·성산구회 : 8월18일 향군회원들이 안정된 의료서비스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니치과와 향군할인 가맹점 체결. 가음정동회는 8월13일 가음정동 일대 마을 정화활동을 실시.



양산시회 : 8월3일 춘추공원 및 충훈탑 환경정화 활동 실시.

밀양시회 : 8월19일 낙동강 침수지역 인밀양시 아리랑 오토캠핑장에서 오물수거 등 수해복구 봉사활동.

창녕군회 : 8월20일 집중호우로 마늘종자 등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져있는 이방면향군 회원에게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



하동군회 : 8월9일, 15일 화개장터에서 나눔 밥차 봉사활동 등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위한 구호봉사활동 전개.

울산시 동구회 : 7월28일 '아리아'에서 예비군 지역대장 및 동대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회원 모집 등 향군업무 논의.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8월11일 해군 제7기동전단을 방문, 부대현황 청취와 유대강화 방안 토의 후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 격려. 7월22일 화목원에서 임직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나라사랑'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7월26일부터 8월6일까지 보훈단체 불우회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배 및 장판 교체) 실시. 8월14일 사려니 숲길 10km(교래리-남조로) 구간에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활동.



제주시회 : 8월3일 제주장애인요양원을 방문, 6·25전쟁기념 마우스 패드, 화장지, 식료품 등 위문품 전달.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향군정회원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온라인가입 바로가기

- 향군 회원가입
- 향군 가맹점
- 각급회 소식
- 향군 연락처

간편한 정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보기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 모바일 바로보기

■ 정회원 자격 : 군번소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 중앙고속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 전국 가맹점별 할인(10~30%)
 - 군인공제회관 '엠플러스 웨딩' 할인 (웨딩, 뷔페 등 전품목 15%)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APP 다운로드 방법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를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친목단체 활동

김열수 박사 초청 안보간담회



성우회는 8월20일 회장단 회의에 이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열수 박사를 초청, '군사안보와 정치안보'를 주제로 안보간담회를 실시했다.

진동리 전투·통영상륙작전 전투 전승기념식



해병대전우회 (총재 이흥희)는 8월15일 창원시 진동리 전 참비에서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를, 8월 16일 해병대 통영지구전적비에서 통영상륙작전 전투 전승기념식을 거행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6.25웅진전투전사자기념사업회 : 9월4일 2사단 3821부대에서 6.25웅진전투전사자 위령제.
 - ▲8240유격군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 9월24일 인천 고구리 충혼전적비에서 유격군 충혼 및 전적비 건립 19주년 추모제.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9월24일 인천 수봉공원에서 제70주년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 기념식.
 - ▲갑종장교전우회 : 9월24일 육군보병학교에서 갑종장교출범 70주년 기념행사.
 - ▲해병대전우회 : 9월25일 104고지 전적비에서 104고지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 ▲6.25참전철도국가유공자회 : 9월25일 서울역 코레일 강당에서 6.25참전 전사자 287위 합동추모제.
-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언택트 시대 기업생존전략 세미나' 2기 모집

평생교육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 발전 기회 제공

종합사업본부 평생교육원이 8월19일 '언택트 시대 기업생존전략 무료 세미나' 1기 모집을 마감하고 2기 모집을 시작했다.

'언택트 시대 기업생존전략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산한 언택트(비대면) 흐름에 맞춰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복지물 유통 전략, 특허 개발 등의 전략을 제공하는 무료 세미나다.

9월2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개설한 이 세미나는 국내 1000만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매주 수요일 향군본부 4층에서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해 복지물 유통 판로개척과 특허전략에 관한 주제로 복지물 현황 및 입점 프로세스, 특허 활용 및 IP전략 수립에 대해 강연될 예정이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확산한 언택트 트렌에 발맞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군은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언택트 시대 기업생존전략 세미나 2기는 상시 모집 중이며 20명 선착순 모집 시 마감한다. 세미나 관련 상세 사항은 재향군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

20.09.02 (수) 첫 강의 시작!

언택트 시대 기업생존전략 무료세미나 1st

· 복지물 유통 판로개척과 특허 전략

- ▶ 참가 대상: 대한민국 1천만 기업 누구나!
- ▶ 모집 인원: 한 기수당 선착순 20명 모집 / 상시 모집 정원 마감시 다음 기수로 우선접수됩니다.
- ▶ 신청 및 문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1시간 15분 / 2020년 9월 2일 (수) 14:00~15:15

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향우산업-네오에스티지, 업무 협약

제품 유통망 구축 국민건강증진 캠페인

향우산업이 8월19일 토탈에어솔루션 기업 네오에스티지(주)와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네오에스티지 제품 유통망 구축 및 향우산업의 '국민건강증진 캠페인' 추진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향우산업은 네오에스티지 자사 제품인 '네오큐어' 공기정정기를 군·안보 단체·협력사에 독점 납품하고 네오에스티지는 원활한 판매를 위해 향우산업 직원과 지사에 제품 교육을 지원한다.



통일전망대 8월14일 운영 재개

강원도 고성군 대표 평화안보관광지인 통일전망대가 172일 만인 2020년 8월14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통일전망대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통일안보 체험장!

033)682-0088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⑧



건강정보

서울 수복하고 한반도 전세 역전시킨 역사적 작전

북한군 병참선 일거에 차단, 낙동강방어선에서 반격 계기 만들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1950년 6.25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한반도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적 기념관이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차원

에서 기념·보존함과 동시에 참전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실증적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시가 직할시 승격과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했다.

연수구 옥련동 청량산 기슭에 위치한 본 기념관은 대지 24,347㎡, 건물면적 1,793㎡으로 6.25전쟁시 사용한 피·아 무기류, 남·북한 군민복장 비교, 인천상륙작전 디오라마 등

이 전시가 되어있는 전시관과 야외 전시장, 야외 공연장,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D.V.D를 상영하는 영상실, 휴게실, 전망대, 소공원 등이 조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현장 학습의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자유유호의 탑에 올라서면 인천 앞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서해안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 인천상륙작전

풍전등화와 같았던 전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U.N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고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와 협소한 수로, 병력, 탄약, 보급품의 운송 등 제반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성공시켰다.

제1단계로 9월15일 오전 6시 한미 해병대는 월미도에 상륙, 2시간 만에 점령했고, 2단계로 한국 해병 4개 대대, 미국 제7보병사단, 제1해병사단은 전격 공격을 감행하여 인천을 점령하고 김포비행장과 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인천반도를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마지막 제3단계로 한국 해병 2개 대대, 미국 제1해병사단은 19일 한강을 건너 공격을 개시하고 20일 주력부대가 한강을 건너 27일 정오 중앙청에 한국 해병대가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작전을 끝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우회 기동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을



일거에 차단했고, 이로 인해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도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서울 수도탈환의 성공으로 국군 및 유엔군의 사기를 크게 제고시키고 북한군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의 대담한 착상, 결단력, 필승의 신념으로 이루어낸 20세기의 칸나에

(Cannae) 전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국 정부와 해군 및 해병대 측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는 마치 승리의 신으로부터 계시라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부하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맥아더가 아니었다면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빛나는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요한 잠, 쿵쿨 잘 자고 싶다면...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을 수면 위생이라고 한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수면 위생을 잘 실천해야 한다.

〈수면위생 7개 항〉

1. 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도록 한다.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으면 침대에 눕기 시작한 순간부터 8시간이 지나 침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밝은 빛을 쬐면 잠을 깨는 데 도움이 된다.

2. 침대는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하라.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등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피해야 한다.

3. 잠이 오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하라.

잠자리에 누워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른 장소로 이동해 독서를 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등 비교적 자극이 적은 일을 하다가 잠이 오면 다시 잠자리에 가서 눕도록 한다.

4. 밤중에 깬을 때 시계를 보지 마라.

시계를 보면 잠을 자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그로 인해 긴장이 되어 잠이 더 오지 않는다. 잠자리에 들 때나 자다가 깬을 때 일부러 시계를 보지 않도록 한다.

5.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운동은 긴장과 불안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낮에 햇빛이 있을 때 운동하면 우리 뇌에 있는 생체 시계를 자극해 야간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준다. 30분~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도 좋다. 잠들기 6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고 취침 직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한다.

6. 잠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어 뇌가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잠자는 동안 우리 인체는 활동할 때보다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약간 낮게 유지하면 인체는 편안함을 느낀다. 무더운 여름밤에는 실내 온도를 18~23℃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7.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은 피한다.

잠자기 4~6시간 전에는 커피나 홍차, 녹차, 핫 초코, 콜라 등 카페인인 든 음료와 초콜릿을 먹지 않는다.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술은 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숙면을 방해하며, 휴면 역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흥분해서 잠들기 어려우니 담배를 멀리한다.

※숙면에 좋은 음식

•우유

자기 전 마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숙면을 돕는다.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세로토닌으로 변화해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한다.

•상추

상추의 쓴맛을 내는 락투카리움 성분이 졸음을 유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임보다는 줄기 끝부분에 몰려 있어 깨끗이 씻어 섭취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바나나

바나나 역시 우유와 마찬가지로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잠을 잘 오게 한다. 또 칼륨과 마그네슘 함유량이 풍부해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몸을 편안하게 해 휴식을 취하도록 돕는다.

•양파

양파에 들어 있는 알리신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취침 전에 생양파를 섭취하거나 얇게 썬 양파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한결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안보정세보고/ 한미동맹의 쟁점과 과제

미국우선주의에 한미동맹가치 낮아져...전작권, 방위비 등 소모적 논쟁도 지속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이윤만 우선시하는 '미국우선주의'는 기존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사를 훼손시켜 현재 한미동맹의 위상은 애매한 상황이다. 미국우선주의는 한미동맹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 미·북 간의 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 및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양국 간 논의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미·북협상 등의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대한 협의는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2010년에 시작된 한미간 2+2 회의는 2년마다 열려왔으나 2016년도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2+2 회의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2+2 회의는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들이 모여 동맹의 전략적 목적을 공동화하는 회의인데, 그동안 양국 간에 정책 및 공동의 위협 인식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같은 회의체를 통해 동맹의 대세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며 이런 논의 없이 행태적 요소, 특히 대북 정책, 미·중 관계, 미군 재배치 문제 및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미동맹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대북 정책

먼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한·미 양국 간에는 2차례의 미·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 관련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선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그리고 등가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실무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제재 해제와 맞바꿀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확장억제력과 관련된 이슈도 존재한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 소규모의 훈련이 지속되기는 했으나, 한미동맹 및 준비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즉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한미군의 군축 수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실제로 제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에 흔들림이 없다고 언급되고 있을 뿐,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합의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동결 대 동결'이 지속될 경우 확장억제력 약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안하고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 국면을 계속 추진할 경우, 한·미 양국은 계속 연합훈련을 중단한 채로 있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미래에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고 평화협정이 서명된다고 가정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력은 제거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써 외교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을 시도하고 있다. 체제 안전보장은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이행 등과 같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즉, 소극적 안전보장이며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 같은 조치는 확장억제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어느 수준에서 맞추어야 하는지가 향후 과제이다.

미·중 관계

미국의 중국 패리기는 매우 거세지고 있다. 미·중 경쟁을 이념적 경쟁으로 보고 있다. 즉, 미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대한 중국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초당적 정책으로 굳어지고 있으며, 홍콩 사태 이후 글로벌 진영이 보다 분명하게 나뉘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일본, 유럽, 호주 등은 반중국 성향을, 러시아, 남미 및 동남아 몇몇 국가 등은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미 정책은 '적극적 방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비해 국력이 부족하므로 트럼프 정부의 중국 패리기에 효율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을 약화시키며 자국 중심의 파트너 국가들을 확대시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농촌지역 발전에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미국 내 대중국 정책 논쟁은 중국 패리기에 집중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집중하는 조 바이든 예비 후보의 정책으로 이분되고 있다. 즉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자는 논리, 결국 미·중 갈등으로 귀결된다는 논리



등의 현실주의 이론이 한쪽이며, 자유주의 국제체제에 기반한 미국 패권 회복에 초점을 맞추자는 자유주의 이론이 다른 한쪽이다.

어찌 되었든 양측의 공통점은 기존 대중국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 경제의 자유화가 정치체제 역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시각에 대한 반발이다.

오히려 중국 경제의 자유화가 지속성을 지니려면 정치개혁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심각한 중국 경제의 문제점들에 있다.

중국 경제는 그림자은행에 의한 무리한 대출,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율, 부동산시장의 버블현상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에 집중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예를 들어, 실업보험의 부재 등)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인민들의 저축에도 불구하고 내수 감소, 수출 감소, 부채 증가에 따른 투자 감소 등의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얼마나 회복력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향후 미·중 갈등이 거세지면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세부 안건 하나하나가 한국의 선택사항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이냐가 아니라, 세부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한 선택들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중국 패리기가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선택했을 경우 중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측의 보장 조치를 미국 측으로부터 약속받을 필요가 있다.

미군 재배치 문제 및 전작권 전환

현재 미 국방부는 국방전략(NDS) 보고서에 기반하여 군 재배치 과정에 있다. 미 의회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미군은 공군력 중심의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을 마련중에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 강화 차원이다. 이미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중 560명이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아 등으로 재배치가 결정되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및 기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과의 상호 운용성 및 운용 유연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다.

아시아 지역의 재배치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재배치가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재배치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전략적 유연성'인데, 이와 관련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 한국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국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의 3단계를 거쳐 검증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독자적으로 발표하여 이후 전작권 전환 검증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제로 올해 FOC 단계는 연합훈련 축소 및 코로나 바이러스,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 및 미군 증원전력 전개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지휘·통제능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령부(UNC, 이하 '유엔사')와의 관계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전작권 전환이 시작되었던 2005년에 미국의 유

엔사 강화 얘기가 나왔으며, 실제로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UNC)'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대신 유엔사 병력 강화로 대체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전쟁 수행 부대가 아닌 병력제공 기능을 하며, 전투를 실제 수행하는 한미연합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사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기반하여 1991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미국은 1991년부터 SMA를 체결하여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SMA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임금 지원이며 군사건설비는 막사, 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시설 건축 지원에 해당하고 군수지원비는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 지원에 해당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지출 내용이나 소요경비와는 상관없이 총 분담 규모를 미국과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에 구성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주한미군이 제시하는 어떤 비용을 한국이 항목별로 분담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유발하는 총 비용중에서 한국이 얼마 정도를 지원한다는 방식이다.

제1, 2차 특별협정에서는 주둔 비용의 1/3을 목표로 산정하였고 제3차 특별협정에서는 달러화 기준으로 매년 10%를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제4차 특별협정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분담금을 산정하였다.

현재 한·미 간 SMA 협상이 진통 중에 있다. 제1차 SMA 협상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약 40% 인상을 요구했는데, 미국측은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외에도 순환 전력 및 장비 배치 비용, 연합훈련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비용 산정을 시도하였으며 한국 근무 특별수당, 근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미국은 SMA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군의 글로벌 주둔 비용까지도 동맹국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호르무즈해협 파병, 주한미군기지 환경정화비 등 동맹 기여를 내세워 대응하였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1월 초 예정의 미 대선 때까지 타결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투명성 등 해소를 위해 총액제가 아닌 미·일 간 채택하고 있는 '사업내역·항목별 소요비용'(PBC) 분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전망 : 트럼프 대 바이든

올해 미국 대선에서 주요 이슈는 코로나19, 경제, 중국이다. 한·미 양측의 대중국 정책 및 동맹 정책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패리기를 강화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공재 제공의 등한시 및 미국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 노선에 의해 중국에 우방국들을 빼앗길 우려가 존재한다. 이 경우 동맹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바이든 민주당 예비후보는 중국 패리기도 강화하겠지만 미국이 우월한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중국 패리기를 강화하며 동맹과 국제기구에 기반한 미국 패권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캠프 내에서 중국 포용론자보다 강경론자들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냉전 때와 같은 '가치 대 가치', '이념 대 이념'의 구도가 아닌 현 미·중 관계는 '돈 대 가치'라는 대결이며 이는 제3국가들 입장에서는 양립 가능한 선택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맹 회복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참고자료】

한미동맹의 쟁점과 과제,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IFANS FOCUS, 2020. 8. 4

* 본 안보정세 분석은 대한민국의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바로잡습니다】

▲재향군인신문 8월호 12면 '안보정세 보고/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기사중 <표2 남·한 통일방안 비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중 '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로 바로잡습니다.